

【부처님의 마지막 유훈】

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.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.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.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.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.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.

내가 열반한 후에는 그동안 설한 가르침이 곧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.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행동하라. 이 가르침대로 행동하면 설령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다. 아직 제도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 놓았다. 그대들이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여래의 법신은 영원히 그대들 곁에 머물 것이다.

수행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.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.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. 불제자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, 물 위에 기름처럼 겹돌지 마라.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.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.